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3호

Jeff Pippenger

2025-12-18

숫자 열셋

우리는 현재 1863년의 예언적 상징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가데스를, 가데스에서 절정에 이르는 한 기간 동안 그들의 죽음을 초래한 '안식'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목해 왔고, 이를 통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거부된 1863년에 예레미야의 '옛 길'이 거부되었음을 보여 준다.

가데스와 1863과 관련된 빛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데스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시험을 식별해 왔다. 우리는 첫 세 가지 시험을 만나와 관련된 시험으로 확인했다. 그 세 단계는 기적 또는 시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첫째인 안식일의 안식은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매우 분명하게 '안식'이라고 규정한 열 번째 시험과 상응한다. 그 열 가지 시험에는 알파의 안식과 오메가의 안식이 있다.

히브리인들이 가데스에서 거절했던 "안식"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하고자 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모든 "안식"(조목조목)은 늦은 비인 "안식과 새롭게 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가데스는 늦은 비의 기별과 또한 늦은 비의 경험을 거절한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 상징이다. 이는 가데스에서 십사만 사천에게 이루어지는 인침이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에 굳게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자리 잡아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맞을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이 올 것이다. 실로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앞으로 무엇이 올지 알게 하신다. 재림교 성경주석 4권, 1161쪽.

'지적으로' '진리 안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을 유일하고 성별된 접근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좁은 접근법은 1840년 8월에 올바른 접근법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 원칙의 타당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 놀라운 추진력이 부여되었다.' 그 '놀라운 추진력'은 1840년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보낸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의미한다.

"놀라운 추진력"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지적으로 진리에 정착한다는 것은 '줄 위에 줄'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줄 위에 줄' 방법론의 '수용'은 라오디게아인에게는 성령의 위격으로 오시는 라오디게아의 사자를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 거룩한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지적으로 진리에 정착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다. 그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영성을 만들어 낸다. '줄 위에 줄'이라는 성경적 방법론을 믿음과 함께 적용하는 것은 지적으로 진리에 정착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그 방법론이 산출하는 진리(메시지)는 말씀 되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으로 진리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인을 받는 영적 체험을 가져온다.

가데스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었다. 요엘서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두 부류는, 다른 부류가 마시는 발효된 포도주와 대조하여 요엘이 '새 포도주'라고 부르는 늦은 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서로 나뉘고 구별된다. 요엘의 '새 포도주'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안식'이다. 또한 그것은 이사야의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 '듣기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안식이요, 이는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규례 위에 규례, 규례 위에 규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서지며 울무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사건이 가데스에서 마무리되는 열 가지 시험 중 '두' 가지를 대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시험을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누는 것은 '짐승의 우상 시험'으로 대표되는 늦은비의 시험 기간과 일치하며, '짐승의 우상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반역'을 지목하는데, 숫자 '열셋'이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교황권의 바다 짐승으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을 하는 권세로 규정한 대로, 그것은 지상에서 반역의 으뜸가는 상징이다. 그 반역 다음에는 땅의 짐승, 곧 미국의 반역이 뒤따르며, 이어 미국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반역의 본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이 장의 세 번째 반역의 양식은 세 가지 반역 중 첫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다 짐승, 곧 바티칸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11절에서 미국은 용처럼 말하며, 이로써 짐승의 형상, 곧 바티칸의 형상을 만든다. 12절부터는 미국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도록 강요한다. 아론의 반역은 이중적이며, 미국의 반역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바티칸의 세계적 형상이 강요될 때 온 세상의 반역을 나타낸다.

아론의 반역은 두 시기를 모두 가리킨다. 모세가 없었을 때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났고,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 모세는 율법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반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분기점을 상징한다.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난 시험은 1863년의 시험이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일요일 법 시험이다. 그것은 약속의 땅과 광야에서의 죽음 사이의 경계선이며,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사이의 경계선이며, 라오디게아 사람 셉나의 운명과 빌라델비아 사람 엘리야김의 운명 사이의 경계선이다. 만나로 대표되는

처음 세 가지 시험은 안식일과 일요일을 둘러싼 논쟁을 상징하며, 열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다.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에서의 경계선은 다섯째와 여섯째 시험을 모두 대표하며, 그것이 곧 일요일 법이다.

네 번째 시험은 '맛사'의 물로, '시험'을 뜻하고, 또 '므리바'는 '여호와와 깃발'을 뜻하며, 이는 출애굽기 17:1-7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주를 시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그들의 여정대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였더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목말라 하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거의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데려가라. 네가 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거라. 보라,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맛사와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며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1-7.

'맛사'가 상징하는 시험과 '므리바'가 상징하는 기치는, 모세가 같은 반석을 두 번째로 칠 때 예언의 처음이 그 예언의 끝과 만나는 사건이다. 이는 열 가지 도발 가운데 네 번째가 가데스에서 상징됨을 뜻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가데스가 모세가 반역하여 그 반석을 친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징으로서의 가데스가 기치를 세우게 하는 물의 시험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기호를 일으키는 물의 시험은 늦은 비 기별의 시험이다. 1863년은 그 기호가 들어 올려졌어야 했던 때였으나, 안타깝게도 1863년은 첫 번째 가데스에 불과했으며, 두 번째 가데스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이다. 맛사와 므리바는 일요일 법령 때 기호로 들어 올려지기 직전 14만 4천이 받는 최종 시험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선한 것은 로마의 권세도 유대인의 권세도 아니었다. 그 권세는 십자가 훨씬 이전, 하늘의 회의에서 이미 허락된 권세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그러나 단 한 번만. 영감에 따르면 그 반석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별로 대표되며, 그것들은 의인의 길을 나타내는 옛 기초 진리들이다. 맛사로 표상된 그 시험에서 구원하는 물은 옛 길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 물은 두 부류를 시험하고 산출한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위한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위한 부류인데, 이는 므리바로 표상된 바와 같이 기호로 들어 올려진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닥사스다의 세 번째 칙령 이전에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에 걸쳐 일으킨 밀러주의자들의 성전도, 세 번째 칙령의 도착으로 표상된 제3천사 이전에 완공되었음을 확증한다. 14만 4천은 일요일법 직전에 인침을 받고, 그때 옛날과 같이 오순절의 첫 열매의 제물로서 기치로 들어 올려진다. 맛사와 므리바는 제1천사와 제3천사의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로 표상된 물의 시험을 가리킨다.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사역은 두 성전을 결합하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또한 남자와 여자, 또는 여성 성전과 남성 성전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으로도 표상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하늘 성전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밀러파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는 1844년의 역사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로 표상되었다.

맛사와 므리바를 네 번째 시험으로 이해하는 이 견해를, 세 가지 시험을 또한 대표하는 시작의 시험과, 그 뒤에 이어지는 다섯째와 여섯째 시험의 일요일 법령 사이에 적용하면—그때 당신은, 그러나 기꺼이 보려 할 때에만—삼중의 만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며, 그 뒤에 아론의 금송아지에 대한 세 번째의 이중 시험으로 이어지는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맛사와 므리바는 함께 제시되는데, 예언적 '이중화'가 위치하는 곳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만이기 때문이다. 만나의 처음 세 가지 시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맛사와 므리바의 시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아론의 반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다섯째 시험은 아론의 금송아지의 시험으로, 반역자들이 자신의 노골적인 반역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여겼을 때 우상숭배가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지체하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로 모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우리 앞서 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린 그 사람,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떼어 내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자기 귀에 있던 금 귀고리들을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조각하는 도구로 그것에 모양을 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린 너의 신들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일이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가져왔으며, 백성은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놀았다. 출애굽기 32:1-6.

여섯 번째 시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 벌어진 금송아지 반역의 두 번째 부분이다. 모세는 "여호와 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 대다수는 방관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한편이 되어, 중보자의 눈앞에서 같은 반역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다섯째와 여섯째 시험은 분명히 예표하며 일요일 법령과 일치한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모세가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한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일요일 법령의 시험을 가리킨다. 짐승의 우상 시험의 상징성은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아론의 이야기에서의 레위인들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이야기에서의 열두 지파의 분열은, 일요일 법령 때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분열을 식별한다. 라오디게아인들은 화이트 자매의 증언대로 미련한 처녀들이며,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 때의 처녀들의 분열은 라오디게아인들과 빌라델비아인들의 분열이다. 하나의 이중의 시험인 다섯째와 여섯째 시험은 일요일 법령과 일치하며, 이는 그것들이 1863년과 가데스와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성취되며, 그날은 1863년과 가데스를 예표한다.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반역에서 모세가 십사만 사천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동일한 모세는 또한 가데스에서 반석을 두 번째로 치는데, 이는 그 반석 위에 떨어지기를 거부하여 오히려 그 반석에 의해 짓눌리는 한 부류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그 반석은 하나의 메시지이므로, 가데스에는 모세를 상징하는 두 가지 표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 반석을 거부한다.

시온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있는 이들은 백성 앞에 놓인 위험을 볼 수 있고,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고가 내려졌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이르렀을 때부터 우리가 세워 오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흔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으며, 그때 이후로 줄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게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으며 빛을 구할 때 우리의 발이 놓이게 된 그 기초 위에서 발을 떼어 놓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이래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였고, 두 번째에는 사람의 권위였다. 두 번째 가데스에서 모세가 대표하는 부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로 묘사되며, 그들은 신학적 권위(지팡이)를 사용하여 늦은비의 메시지를 공격하는데, 그 메시지는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옛 길의 메시지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눈은 보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여진 것들을 본 눈들은 복이 있다.”

“그 기별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일에는 지체가 없어야 한다. 이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무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지정하심에 따라 한 기별이 곧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큰 외침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437.

만나의 첫 번째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이다. 열 가지 시험의 마지막은 셋째 천사의 시험이다. 처음과 마지막 모두 시험의 상징으로 ‘안식’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시험은 세 가지 시험으로, 둘째 천사가 뒤따르는 첫째 천사를 대표하지만, 인침과 기치로 들어 올려지는 네 번째 시험은 맛사와 므리바로 대표된다. 제5와 제6의 시험으로 대표되는 셋째 천사는, 맛사와 므리바의 둘째 시험과 만나의 첫째 시험을 뒤따르는 셋째 시험이다.

민수기 11장 1-3절에 기록된 다베라에서의 도발은 일곱 번째 시험이다. ‘불타는 곳’을 뜻하는 ‘다베라’가 상징하는 믿음의 불같은 시련을 소개하는 구절들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10장에서 드러난 조급함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14만 4천과 대조된다. 그들은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10장에서 조급함을 드러냈고 그것이 11장에서 그들의 불같은 시련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갔고, 그 사흘 길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 가며 그들을 위한 쉼 곳을 찾았다. 그들이 진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머물면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천천에게로 돌아오소서.” 민수기 10:33-36.

다음 절은 다베라의 반역을 소개한다.

백성이 불평하자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그의 진노가 타올랐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삼켜 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이다. 민수기 11:1-3.

불이 나타난 뒤에 이어진 도발은 고기를 갈망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여덟 번째 시험이다. 이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베라에서의 불평은 부패한 상위 본성, 곧 인내의 결여를 나타내며, 애굽의 고기 가마솥을 탐하는 욕망의 반역은 하위 본성을 대표한다. 그 불은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불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 예언적으로 ‘다베라’는 ‘불타는 곳’을 뜻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그 불타는 곳은 말라기 3장에 위치하는데, 그곳에서 불은 제거될 운명의 조급한 부류와 들어 올려 드러지는 제물로서 정결케 되는 인내하는 부류를 형성한다.

다베라에서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에 관한 이중 시험에서 모세가 대표한 자들은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에 견고히 굳게 선 십사만 사천 명이다. 지성은 높은 본성을 식별하며, 영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 신성은 낮은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만 인성과 결합될 수 있다. 진리에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굳게 선다는 것은 인침을 받는 경험을 의미한다. 다베라의 불은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일으키시는 사역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일을 상징한다.

아홉 번째 시험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다. 그 도전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도전이나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의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거절한 것이었다.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자까지도 거부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는 열 번째 시험에 앞선다. 열 번째 시험인 일요일 법령 직전에 지도부는 배교자로 드러난다. 일요일 법령은 십자가와 상응하며, 그 십자가(일요일 법령)로 향하는 길에서 지도부는 거짓 그리스도인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는 'bar'가 '~의 아들'을, 'abba'가 '아버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일요일 법령) 또는 가데스에 다가가면서, 지도부는 거짓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전면적인 배교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세속 당국에 직접 밝힌다.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시험은 인침 과정을 식별하는 것이지만, 그 예증은 미련한 처녀들에 관한 것이다. 그 시험들 중 열째는 가데스의 첫 반역이었으며, 1863년을 표상한다. 1846년부터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인도되었다. 십계명의 두 돌비는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며, 하박국의 두 판은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한다. 둘째 판은 1850년에 제시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것처럼 1856년까지 최종 시험이 주어졌는데, 이는 약속의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로 표상되었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7년 동안 형성된 다수의 견해는 라오디게아의 광야가 그들이 죽고자 하던 곳이라는 것이었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은 홍해에서의 세례로 시작되어 요단강에서의 또 다른 세례로 끝나는 기간으로 예표되는데, 그 요단강의 장소는 예수께서 훗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동일한 곳이었다. 홍해에서의 세례는 고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규정하였다. 그 관계는 결혼으로 시작되었고, 동시에 열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어 시내산으로 인도되어 그분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가데스에서의 첫 반역 때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 실패했다. 사십 년이 지난 뒤, 가데스에서의 두 번째이자 더 큰 반역 이후,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침례의 모든 이정표는 언약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메가와 두 번째 가데스의 역사는 첫째이자 알파 가데스의 역사와 일치한다. 모세의 오메가 반역은 가데스의 알파 반역에서 온 민족의 반역보다 훨씬 더 컸다. 오메가는 항상 더 크다. 두 반역은 함께 늦은 비 기별의 안식에 들어가기로 거부하는 이사야의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반역을 대표한다.

세 가지 세례(홍해,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의 것이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알파요 그리스도는 오메가이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글자와 스물두째 글자 사이에 있는 글자, 즉 열세째 글자가 첫째 글자 뒤에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자 스물두째 글자가 붙으면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들어진다.

가운데 세례는 요단강과 가데스였다. 홍해에서의 첫 번째 세례 뒤에는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뒤따랐다. 그러나 요단강에서의 첫 번째 세례는 가데스를 두 번째로 방문하고 요단강에서의 실제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미루어졌다. 세 번째 세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방문의 때를 나타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9장 27절의 성취로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도래했고,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때였다.

홍해에서의 첫 침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가데스로의 두 차례 방문은 '이중화'를 나타낸다. 첫 번째 가데스 방문과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역이 나타나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지도부의 반역이 드러난다. 가데스와 그 두 차례의 방문은 두 부류가 드러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이중화를 나타내며, 이 두 부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한 지도부 가운데서도 각각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이며,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이 분리되었던 것과 같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은 홍해 사건부터 가데스에서의 첫 반역까지에 해당한다. 1844년은 홍해 도하이로, 1846년은 안식일 시험의 상징인 만나이며, 화이트 부부는 그들이 결혼한 1846년에 그 시험을 통과했다. 1849년에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펴셨다. 그분은 첫째 천사의 기별 기간 동안, 하박국의 표들 가운데 첫째가 역사에 등장했을 때 그들을 모으셨고, 둘째 표도 같은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다.

오메가 1850 도표는 모으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알파 1843 도표가 했던 일과 같았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는 도표를 가졌고, 셋째 천사도 도표를 가졌다. 이는 첫째가 알파요 셋째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두 도표"는 첫째와 셋째 천사의 이정표이지, 둘째의 것은 아니다. "도표"의 예언적 기간은 오류가 있는 도표로 시작하여 오류가 없는 도표로 끝난다. 두 도표 사이의 역사는 둘째 천사의 역사이며, 그 기간 동안 도표는 1850년까지 제쳐진다.

1844년 4월 19일에 1843년이 끝나자, 1843년 도표는 그때 1843년을 잘못 예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1844년 4월 19일부터 1850년까지는 하박국의 판이 없다.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는 도표가 없었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알파는 판이고 오메가도 판이며, 그 중간은 바벨론의 몰락이다. 그것은 반역의 상징으로, 판이 없던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 하박국의 판들이 존재하던 역사적 시기는 진리의 표지를 지니고 있다.

1850년은 시내산과 율법의 수여로 예표되었다. 그 사건은 두 덩이의 요제 떡이 들어 올려지는 오순절로 기념되었다. 요제 떡을 들어 올리는 그 과정은 1842년 5월에 도표를 인쇄하고 보급한 일과, 1849년에 두 번째 도표가 준비되고 1850년에 발행된 역사로 나타난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경우 부활로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 곧 40일과 그 뒤의 10일로 나뉜 기간으로 표현된다.

1849년에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손을 내미셨고, 1850년에는 하박국의 둘째 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데스로 이끄는 시험의 과정이 진전되었다. 1856년에는 이 운동의 정기간행물에 밀러의 기초적 예언 계시에 대한 새로운 빛이 발표되었을 때, 고대 이스라엘의 열 가지 시험 중 마지막 것이 도래했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 예언적

2,520일 동안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1863년에 그들은 그들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진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1871년 12월 10일 버몬트 주 보르도빌에서 내가 받은 이상에서, 남편의 처지가 매우 어려웠음을 보았다. 염려와 수고의 압박이 그를 짓눌러 왔다. 사역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짐을 지지 않았고 그의 수고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압박은 그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다. 역경의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향해 원망하는 자들도 있어 왔다." 증언, 제3권, 85쪽.